

나주시 전남 첫 ‘이차전지 완제품’ 생산한다

(주)엘씨엠에너지솔루션, 나주혁신산단에 생산시설 구축

내달 4일 공장 착공식...2000억원 투자·250명 신규 고용

‘에너지수도’의 꿈이 무르익는 나주의 에너지특화 산업단지인 혁신산단에 전남지역 최초의 이차전지 완제품 제조공장이 들어선다.

30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전남도·나주시와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엘씨엠에너지솔루션이 내달 4일 나주혁신산단 현지에서 공장 착공식을 개최한다.

엘씨엠에너지솔루션은 혁신산단 3만5000㎡ 부지에 2000억원을 투자해 해양용·휴대용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이차전지 배터리 완제품 제조공장을 오는 2023년까지 구축한다.

사업역역은 크게 ‘리튬이온 배터리팩’, ‘리튬 폴리머 셀 제조’, ‘신재생 에너지 등’ 3개 분야로 국내 5대 메이저급 규모를 자랑한다. 배터리 200명, 신재생에너지 40여명 등 총 250여명을 신규로 고용할 예정이다.

주력인 ‘리튬이온 배터리팩’은 폐전기차 재생 재활용 배터리 팩, 태양광가로동 배터리 팩,

이모빌리티 배터리팩, 드론·골프카트·전동 바이크 팩 등 분야가 다양하다.

엘씨엠에너지솔루션은 본격 생산을 개시하면 군남 등 차별화된 공급망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 운영은 물론 수출 주도로 세계적인 배터리 제조사와 경쟁한다는 목표다.

석·박사급 수십 명으로 구성된 연구기관도 설립해 전남 첨단산업 발전에도 힘을 보탬 예정이다.

엘씨엠에너지솔루션은 여수·광양산단과의 연계로 이차전지 원부자재의 효율적인 공급망 확보, 전남도와 나주시의 과격적인 지원책, 차후 생산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한전 에너지밸리 확장성, 한전공대를 비롯한 풍부한 인적 인프라 등을 이유로 나주에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주시는 한국에너지공단법 통과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를 통해 향후 지방세수 증대,



김영록 전남도지사(오른쪽 두 번째)가 2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정찬균 나주부시장, (주)엘씨엠에너지솔루션 이철찬 대표, (주)엘씨엠에너지솔루션 이병홍 회장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신규일자리 창출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홍 (주)엘씨엠에너지솔루션 회장은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에서 국내 이차전지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겠다”며 “내달 4일

에너지밸리의 중심인 나주혁신산단에서 신개념 이차전지산업의 첫 발을 때는 공장 착공식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SRF, 대기배출 법적 허용기준 충족”

한국지역난방공사는 30일 “나주SRF 열병합발전소(이하 나주SRF) 본격 가동 이후 대기배출물질이 법정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한난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6일부터 발전설비를 가동한 결과, 먼지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대기배출물질 수치가 법적 허용치와 자체 기준치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주SRF는 앞서 민·관협력 거버넌스 합의에 따라 지난해 시행한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에서도 대기질 등 6개 분야 66개 항목이 법정 배출허용기준을 충족시킨 바 있다.

한난은 지난달 15일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발전소 가동의 법

먼지·질소산화물·염화수소 등 법적 허용 비례 현저하게 낮아

적 정당성을 확보한 뒤 발전소 가동의 불가피성과 지역상생 의지를 골자로 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바 있다.

한난 관계자는 “나주SRF의 철저한 환경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의 환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동결과를 공개했다”며 “앞으로도 발전소의 투명한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사업비 2700억 원이 투입된 나주SRF는 한난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건설했다.

2015년말 준공됐지만 주민들이 대기오염을 우려해 가동에 반대, 집단 반발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보일러만 가동해오다 행정소송 1심 선고후 재가동됐고, 이에 나주시와 주민들이 항의방문과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목포시 “시내버스업체 휴업 허가신청서 철회”

목포시는 목포시내버스업체인 (주)태원여객·(주)유진운수가 휴업 허가신청서를 철회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내버스 업체는 지난 28일 목포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합리적 대안제시를 위한 공론화가 진행되는 기간 공론화 위원회의 제시안을 수용하고 휴업 허가신청을 철회하고자 한다”고 통보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15명으로 구성된 ‘목포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5일 1차 회의를 갖고 시내버스 업체의 휴업 철회 및 투명한 회사 경영을 요청했다.

목포시내버스 업체에서는 지난 4월27일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시는 지난 5월4일 반려한 상태다.

공론화위원회는 6월 중 2·3차 두차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목포=박정수 기자

‘해남식 닭코스요리’ 음식거리 조성사업 속도 사업비 10억원 투입 주차장·보행로 조성·간판 정비 등 주민설명회



해남군은 전남도의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해남식 닭코스요리 음식거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은 지역 음식을 대표하고 단일 메뉴를 취급하는 식당이 밀집돼 있

는 곳을 음식거리로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비 5억을 포함해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 주차장과 보행로를 조성하고 간판과 안내판 정비, 쉼터 및 경관을 조성하게 된다.

해남식 닭코스 음식은 닭을 이용해 육회와 불고기, 구이, 보양백숙, 닭죽까지 5가지 요리를 차례로 맛볼 수 있는 코스 요리이다.

해남읍 연동리 일원에 12개 전문점들이 닭·오리 요리촌 단지를 이루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요리법이 유명해지면서 해남을 대표하는 맛으로 자리잡았다.

지난 2008년 해남군 최초로 먹거리 특화거리인 닭요리촌으로 지정해 업소 개별적으로

보수가 이뤄지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낡고 노후화돼 불편을 겪어오고 있다.

또 음식점과 차도 사이에 보행로가 없고 주차장이 부족해 방문객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군은 지난 28일 해남읍 연동리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차공간 확보와 인도개설, 간판 및 외벽정비 등 거리경관 개선과 안전하고 쾌적한 남도음식거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 추진의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또 1대1 컨설팅을 통해 단품메뉴 개발과 함께 지역민 및 관광객들과 상생할 수 있는 영업주 경영마인드 향상교육을 지원하는 등 닭요리촌 발전에 대한 지역민 의지도 모았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식 닭코스요리를 더 많은 국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브랜드 가치와 음식문화 감수성을 높여가겠다”면서 “외식업해남군지부와 협력해 해남식 닭코스요리 가치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오늘의 한걸음, 미래의 행복백신

행복으로(로) 걷기 광산

시민 & 동아리 모집

개인 (주민)

1 워크온 앱 설치 및 실행

2 광산구 커뮤니티 그룹 행복으로 가입

동아리 (5인 이상 단체)

1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2 동아리 가입 신청서류 제출

문의 | 관할동 행정복지센터